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 ████████████████████	이름	박서경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헌츠빌
파견대학	샘휴스턴주립대학교	파견기간	2012. 08 ~ 2013. 05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텍사스 헌츠빌에 위치한 샘휴스턴주립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샘휴스턴주립대학교의 크기는 순천향대학교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작은 것 같습니다. 학교가 언덕지지 않아서 캠퍼스를 돌아다니는 데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백인 35%, 흑인 35%, 히스패닉 (멕시코계열) 25% 동양인 5% 정도의 비율로 동양인이 많지 않습니다. 인종차별은 한번도 느끼지 않았지만 같은 인종들끼리 어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p>
2012-2학기 수업	<p>Human Resource Management (Kathleen Utecht) 경영학과의 인사관리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사전에 국제통상학과 학과장 교수님과 수강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 못해서 결론적으로는 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수강할 과목은 지도교수님뿐만 아니라 학과장 교수님과도 사전에 확실히 얘기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 수업은 저에게는 지루했던 수업이었습니다. 시험은 3번 중에 2번은 Open book이었고, 수업의 일부로 몇 번은 컴퓨터로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다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험과 동일한 퍼센트로 점수환산이 되었습니다. 컴퓨터로 다루었던 내용은 유인물에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다.</p> <p>Development of English (Leann Fischel) 영어학개론과 비슷한 과목이라고 생각했는데 Composition 1을 수강하기 전, 에세이를 쓰기 위한 기초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모르고 Composition 1과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에세이 과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수업 내용은 기본적인 문법과 문장의 오류 등을 배웠고 학기 중에 5번의 에세이와 몇 번의 inclass 에세이를 썼습니다. 단어 퀴즈도 꾸준히 봤습니다. 1학년 수업이라 비교적 부담도 덜했고 쉬웠습니다. 에세이를</p>

많이 쓰는데 교수님이 1:1로 첨삭도 해주시고 문법도 쉽게 알려주셨습니다. 수업 중에 교과서에 나온 내용으로 짧은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과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다른 과목들에 비해 난이도는 쉬웠던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활발하게 수업을 진행하셔서 지루하지 않은 수업이었습니다.

Composition 1 (Ann Jennings)

위에 언급 했듯이 Development of English의 다음 난이도의 수업이었지만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글쓰기를 위한 문법이 조금 더 구체화 되고 에세이의 종류가 다양해졌을 뿐 문법을 배우고 에세이를 쓰는 수업 내용은 동일합니다. 문법 퀴즈를 봤고, 에세이의 비중이 성적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총 5번의 에세이를 제출했습니다. 교수님은 젊으신데 수업 외에 개인적인 대화는 잘 하지 않으셔서 교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수업 내용은 알차고 좋았습니다.

English Grammar (Rob Adams)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과목입니다. 한국에서는 문법 중심으로 배우기 때문에 저에게는 다른 과목에 비해 쉬웠습니다. 어렵고 생소한 부분도 조금 있긴 했지만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3학년 과목이고,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지만 한국에서 문법 기초를 탄탄히 배운 한국 학생들에게는 점수를 얻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중에 농담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Multiple choice가 대부분입니다.

Speaking for Business & Professions (Patricia Capps)

Speaking 수업을 듣는다면 추천하고 싶습니다. 첫 학기라서 Speaking 수업이 많이 부담되었지만 교수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챙겨주시고 복돋아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반에 저밖에 International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교수님도 아직 영어에 서툰 부분을 많이 이해해주셨습니다. 총 3번의 다른 테마의 발표가 있고 기업을 하나 선정해서 그 기업을 중심으로 발표를 합니다. 발표 외에는 교과서로 수업을 합니다. 시험은 3번이었고 모두 multiple choice였습니다.

Jazz Dance Tech 1 (Shate' Edwards)

일주일에 3번 수업했는데 정말 재미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대중적인 노래를 하나 선정해서 춤을 배우는데 중간중간에 재즈 테크닉도 배우고 그 테크닉을 춤에 적용시켜서 배웁니다. 학기 중에 총 2곡으로 춤을 배웠고 1곡으로 학기 마지막에 있는 Dance major 발표회에서 다 같이 연습한 춤을 발표합니다. 실수도 했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발표회는 미국이라서 해볼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중간점검처럼

2013-1학기 수업	<p>배우고 있는 춤을 배운 부분까지 2명씩 노래에 맞춰서 춤을 췄습니다. 매 시험마다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감을 많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동작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어렵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는 수업 전에 매번 하는 스트레칭이 좋았습니다.</p> <p>Weight Train & Physical Conditioning (Laura Dougherthy)</p> <p>헬스 기구들과 사용법을 배웠던 수업이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았고 시험도 퀴즈처럼 몇 번 봤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교수님은 젊으시고 재미있는 분이신데 휴강이 잦았기 때문에 알차게 배웠다는 느낌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수를 받기는 정말 쉬웠던 과목입니다.</p>
	<p>International Management & Marketing (Irfan Ahmed)</p> <p>과목명 그대로 국제경영과 마케팅을 배웁니다. 교수님이 인도 분이셔서 발음과 억양이 알아듣기에 약간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업 듣는데 적응이 되었습니다. 4학년 과목이라서 쉽지는 않았으나 총 3-4번 있던 시험이 multiple choice여서 PPT 자료들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에는 team presentation을 하나 하는데 그 것을 위한 개별적인 레포트와 ppt 발표자료를 교수님께 보내고 최종 발표는 다 같이 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수업 내용은 알차고 많이 배운 것 같아 좋았습니다.</p> <p>Principles of Macroeconomics (Brian Piper)</p> <p>전혀 모르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가장 노력도 많이 했고 알차게 배웠던 과목입니다. 경제는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교수님께서 재미있는 예시와 함께 설명해 주셔서 정말 쉽게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물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교과서를 읽거나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다음 수업을 따라잡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공부해서 이해했습니다. 시험은 3번 있었고 첫 번째는 multiple, 두 번째는 단답형, 세 번째는 섞어서 나왔고 범위는 처음부터 끝까지였습니다. 내용은 어려웠지만 교수님 덕분에 쉽게 배웠던 과목이었습니다.</p>
	<p>History of English (Helena Halmari)</p> <p>2012-2학기에 들었던 English Grammar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셔서 수강했는데 정말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한국말로로는 영어발달사라고 하는데 고대 영어, 중세 영어를 배우는 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고대, 중세 영어도 한글과 마찬가지로 현대 영어와는 모양, 문법 등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 2외국어를 배우는 저에게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미국 친구들도 굉장히 어려워해서 수강생이 많지 않았지만, 시험기간에는 같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했습니다. 교수님은 친절히 설명해 주시지만 내용이 어려워서 지루하기도 했습니다. 시험 이외에 고대, 중세 영어에 대한 한 부분을 선정해서 7-8장 분량의 paper을 제출해야</p>

	<p>했습니다.</p> <p>Public Speaking (Terri Jagers)</p> <p>전반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저명하신 분이셔서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많으셨고 많은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매 수업시간마다 토론과 발표를 해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인 저에게 매번 발표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반에서 혼자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교수님께서 많이 이해해주셨습니다. 주가 되는 발표는 총 3번인데 그 발표 전에 매 시간마다 했던 토론 발표 때 교수님께서 일일이 잡아주시고 조언해주셔서 총 3번의 발표는 나쁘지 않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public speaking과 미국의 문화에 대해 조금 더 배울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p> <p>Pilates – Mat work (Betty Nicolay)</p> <p>이 과목은 수업이라기 보다 필라테스 전문 학원에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께서 필라테스 동작을 설명하시고 따라하면서 배우는 과목인데 자세와 관련한 전문 용어가 많았기 때문에 유일한 Internatioanl이었던 저와 제 친구에게 교수님의 지시를 이해하는 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강생이 많지 않았을 뿐 더러 교수님께서 특별히 저희에게 신경 써주셨고 직접 자세를 교정해 주셔서 수업을 따라잡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기말고사는 배웠던 동작들로 1시간 프로그램을 각자 세워서 시험 시간에 필라테스를 하는 것입니다. 큰 부담 없이 필라테스를 배운다고 생각하면서 수강했던 과목이었습니다.</p> <p>Individual Performances - Clarinet (Dmytro Perevertailenko)</p> <p>한국에서 클라리넷을 꽤 오래 배우다가 그만 뒀었는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악기를 한국에서 가져가지 않았는데 마침 교수님께 남은 악기가 있으셔서 싸게 구입해서 일주일만에 한 시간씩 레슨을 받았습니다. 1:1 레슨이었기 때문에 교수님과 얘기도 많이 나누고 교정도 많이 받았던 알찬 수업이었습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i>Chi Alpha International Friday night</i></p> <p>Chi Alpha라는 학교와 연계된 기독교 단체에서 매 달 첫 번째 금요일마다 International Students를 위한 작은 파티를 개최합니다.</p> <p><i>Buddy program</i></p> <p>한 학기에 몇 번씩 미리 맺어진 Buddy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International office에서 스케줄을 잡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텍사스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하지만 8월 말에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겨울이 되면 추워지기는 하지만 반팔을 입을 수 있는 날도 있습니다. 1월과 2월이 가장 춥고 2월 말부터 날씨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안전	학교 옆에 교도소가 있어서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v) 기타()</p> <p>Arbors of Sam Houston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대부분이 학생들이고, 아파트 오피스에서 여러 가지 작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학교와 가까워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v) 홈스테이 ()</p> <p>외부식당 (v) 직접 요리 (v) 기타 ()</p> <p>Meal plan은 이용하지 않았고 학교 내의 식당에서 사먹거나 집이 가까웠으므로 공강 시간이 길면 집에 가서 밥을 해먹었습니다. 시간이 많을 때는 아침에 집에서 점심을 만들어 가곤 했습니다.</p>
교통	학교는 걸어 다녔습니다.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주변 도시에 갈 때는 차가 있는 친구들에게 부탁해야 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W 1,009,500 (인천-휴스턴) \$ 667.60 (밴쿠버-인천)	갈때, 올때 모두 United airlines 이용
Fees		
보험료	\$ 942	학교 보험 이용
숙소	\$ 370 (monthly)	Electronic, water 제외
식비	\$ 200 (monthly)	
교통비	\$ 0	
책값	\$ 300	Rent
기타1	\$ 27 (monthly)	핸드폰
기타2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p>출국 전에 보통 이것 저것 많이 챙기는데 저는 많이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Walmart 에 가서 이불 등 당장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한국 음식은 많이 챙겨오지 않아도 됩니다. 휴스턴에 있는 H-mart에서 모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돈은 환율이 낮을 때 많이 바꿔서 가져와서 Bank of America 계좌를 만들어서 바로 넣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 한국 돈을 인출 할 때 (한국에서 Citi 은행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Citi은행에 갈 수 있을 때는 가서 뽑았는데, (차타고 30분 넘게 가야합니다) 갈 수 없을 때는 학교에 있는 ATM에서 인출했습니다 (그래도 수수료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p> <p>학교에서 수강할 과목에 대해서는 학과장님과 미리 충분히 상의 하고 수강하셔야 합니다.</p> <p>출국 시 관련된 서류, 특히 i-20 모두 챙겨서 공항에 가시기 바랍니다.</p>

6. 본인 소감 및 평가

교환학생으로 생활했던 2 학기는 길게 보였지만 지나고 보니 길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교환학생을 오기 전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막막하기만 했는데 막상 와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 모두 쉽게 해결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녹음기를 준비해 가서 녹음해가며 수업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과 비슷한 과목은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더 잘 들렸지만, 생소한 과목은 수업을 제대로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시험이 한국과는 다르게 여러 차례 있고 퀴즈도 여러 번 있어서, 17학점 정도 들었던 저에게는 딱히 시험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거의 한 학기 내내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학생들 대부분은 12학점 정도 수강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수업 중에 이해하지 못했던 과목들은 수업 끝나고나 주말에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나 지식인 등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업 이외에 시간에는 Gym에서 fitness program에 참여하거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과제나 시험 공부를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일요일에는 우드랜드에 있는 작은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한국 음식도 먹고 한국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시간이 맞는 사람들과 토요일에 쇼핑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두 학기 동안 지내면서 가장 값지다고 생각한 것은 좋은 친구들을 얻은 것 입니다. 한국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Chi alpha라는 단체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모두 순수하고 친절하고 한국 친구들처럼 재미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는 미국인은 미국인이라는 편견 아닌 편견이 있었는데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재미있기도 했고 지금은 너무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한국에서 공부 했던 것 과는 다른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문화를 바로 옆에서 체험할 수 있었고, 현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용했던 영어는 한국에서 영어 공부했을 때 보다 영어 실력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졸업 후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짧지 않았던 1년을 정말 알차게 보낸 것 같아서 매우 보람을 느낍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Chi Alpha 에서 Costume party</p>	<p>학교 풋볼 경기 (첫 학기에만 경기가 있습니다)</p>
	
<p>Buddy 집에서 보냈던 Thanks giving day</p>	<p>International office에서 주관했던 크리스마스 쿠키 만들기</p>
	
<p>한국 설날에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웃놀이</p>	<p>3월에 열리는 휴스턴 로데오</p>